

2010년 북한자유주간을 위한

미 하원의원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당, 플로리다주)로부터의 메시지

친애하는 남한 그리고 북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자유연합 회원들, 디펜스포럼의 수잔회장,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회원들, 목사님들, 탈북자분들, 납북자 가족들, 한인교포 여러분, 한국의 모든 친구분들께:

이번에 매년 워싱턴에서 열리던 북한자유주간이 처음으로 한반도 내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북한자유주간은 남한의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와 다가오는 6.25 전쟁 60주년 기념일을 생각해볼 때 시기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로 발발했지만 그 비극적인 전쟁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법안 제정을 샘 존슨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저는 최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상규명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깝게 목숨을 잃은 46명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대처는 그 어떤 보상보다도 더 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 조사의 투명하고도 철저한 절차를 거절한 일은 작년에 6자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이는 2008년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매우 미성숙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달 안에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에서 북한자유주간이 열리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중국 수뇌부와 악의 거래 및 협상을 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쇠퇴하고 있는 정권과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식량 공급을 요구하며 비핵화 혹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6자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가 남부 레바논에 있는 테러조직인 헤즈볼라에 미사일을 팔았던 것은 북한의 위험한 미사일/핵무기 확산 게임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가 팔았던 미사일 기술은 아마도 평양의 무기 거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난민 출신이자 북한인권 옹호자로서, 저는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제정을 주도하여 진행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재승인 법안은 중국이 UNHCR이 탈북자를 돕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경 지역에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고도 끔찍한 탈북자 여성 및 아이들의 인신매매를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중국 공산주의자의 우두머리인 후진타오에게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외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미국 정부와 국무부가 북한정부에게 미국시민인 아이자란 말리 고메즈를 북한 땅으로부터 내보내라고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작년에 그들이 로라 링과 유나 리 그리고 로버트 박에게 했던 것과 같이 더 이상 그들의 정치적 게임의 희생물로 미국 시민들을 잡아가지 말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은 그들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남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납치, 납북했던 과거의 잘못을 청산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는 단합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모여 북한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중국이나 몽골, 동남아시아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북한 난민들을 구출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방송하고 북한 내부의 자유를 약속하는 것 그리고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가족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그리고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북한 정권에 한줄기 빛을 비출 수 있고 그래서 어둠으로 둘러싸인 북한의 수용소에도 햇살이 비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북한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 하원의원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올림